

수영 대회

유다현

○○월 ○○일 ○요일

날씨: 인어가 되어 물속에 풍당 빠지고 싶을 만큼 습한 날

수영 대회가 있는 날이다.

대회가 열리는 강원도로 가기 위해서 새벽 일찍 출발했다.

떨리긴 했지만 걱정은 크게 되지 않았다.

‘예선에서 월등한 실력으로 진출했잖아. 내 실력만 유지한다면 문제없을 거야.’

수영 반에서 에이스인 나에게 거는 기대는 컸다.

처음 수영을 시작한 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우연히 수영장에 놀러 갔다가 물개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물살을 빠르게 가르며 수영하는 언니를 보았다.

물놀이마저 잊어버릴 만큼 나는 수영이 주는 매력에 흠뻑 빠져 버렸다.

엄마를 졸라서 바로 수영을 배웠다. 몇 달 배우지도 않았는데, 코

치님은 나에게 신동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남들은 일주일에 걸쳐서 겨우 하는 동작을 나는 3~4일이면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 나는 엄마에게 자랑거리였다.

엄마는 어디를 가든 내 자랑을 했다.

“우리 다현이가 수영에 천재적인 소질을 보여요. 마린 보이 박태환이 아니라 마린 걸 유다현이라니까요. 호호.”

엄마의 그런 자랑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넌 지금처럼 계속 일 등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말로 들려왔기 때문이다.

엄마가 굳이 나에게 그런 압박을 주지 않아도 나는 일 등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수영에 대한 욕심은 세계 금메달을 받을 정도로 컸다.

나의 천재적인 능력도 연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수영을 배우고 일 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내가 올라온 자리에서 내려가기 싫었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움직이고 연습을 했다.

무조건 일 등이 아니라, 이 등과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일 등이 되고 싶었다.

수영장에 도착하고 탈의실에 들어가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다.

“이번에 나온 최다혜 선수랑은 같은 조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 옆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쫓긋 세웠다.

“나도 마찬가지야. 예선 기록이 인간이 낼 수 있는 실력이 아니야. 전생에 인어 공주였나 봐.”

다른 선수들의 농담 섞인 대화가 나에게서는 그냥 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최다혜 선수는 나와 같은 조였기 때문이다.

갑자기 내 몸이 땅속 지하로 꺼지는 것 같았다. 심장을 조여 오는 듯한 압박에 숨 쉬기도 힘들어졌다. 겨우 심호흡을 하고, 수영장에 들어섰다.

기록으로 레인이 정해졌고, 최다혜가 1번 레인, 내가 2번 레인이었다.

그전 대회에서는 느껴 보지 못한 불안감이 자꾸만 찾아왔다. 결눈질로 옆에 서 있는 최다혜 선수를 봤다. 웃고 있었다. 마치 물놀이 나온 어린아이마냥 행복해 보였다.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곧바로 우리는 출발대에 올라섰고, 총소리가 들렸다.

물속으로 첨병 들어갔다.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나는 앞으로 쪽 뺨어나갔다. 금메달을 목에 걸 생각만으로 힘차게 물살을 갈랐다.

어떻게 턴을 하고, 어떻게 출발선까지 돌아왔는지 모르겠다.

“금메달 1번 레인 최다혜, 은메달 2번 레인 유다현…….”

그다음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내가 금이 아닌 은메달을 땀다는 사실에 눈물이 쏟아졌다. 이미 흠뻑 젖은 덕분에 남몰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수영장에서 나와 메달을 받고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위에 서서 웃고 있는 금메달이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했다.

‘언제나 내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간단한 샤워를 끝내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탈의실로 들어갔다.

한참을 샤워 부스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고 왔더니, 탈의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서인지 코치님이 탈의실로 들어왔다.

“울었냐?”

코치님의 한 마디에 이미 쏟아 냈다고 생각했던 눈물이 또 터졌다.

“저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런데 왜 이 등일까요?”

천재, 신동 이런 말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일 등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넌 일 등만 보잖아. 즐기지 못해서 그래.”

코치님 말을 듣는 순간, 망치에 맞은 것처럼 멍했다. 1번 레인에 서서 웃고 있던 최다혜 선수가 떠올랐다.

“다현아, 넌 수영을 하면 즐겁니? 아니면 일 등을 해서 즐거운 거니? 선생님은 네가 즐겼으면 좋겠다.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코치님의 말은 내가 항상 품어 왔던 생각을 흔들어 버렸다.

수영이 좋아서, 시작했지만 지금의 나는 어떤가?

일 등이 좋아서 수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무조건 일 등은 할 수 없는 거야. 이제부터 나는 지는 것도 배워보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긴장이 풀리면서 배가 고파졌나 보다.

“다현이, 너 또 아침 굶고 왔지?”

코치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수영 대회가 있는 날에는 이상하게 밥을 먹을 수 없었다. 어쩌면 일 등을 꼭 해야만 된다는 마음이 꼭꼭 차올라서 그런 것도 같다.

코치님이 내 손을 끌면서 말했다.

“우리 치킨 먹으러 갈까?”

치킨이라는 말에 입안에 침이 고였다.

배에서는 꼬르륵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끄럽게 울렸다.

비록 이 등이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오늘 먹은 치킨 맛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치킨 맛은 이 등도 괜찮다고 토닥여 주는 듯했다.